

제58호(2013. 5. 27.)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

박 기 환

1. 엔화 환율 하락과 농식품 수출 동향 3
2. 엔저 이후 농식품의 대일 수출 영향과 전망 7
3.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02-3299-4364 myongeor@krei.re.kr
내용 문의: 박기환 연구위원 02-3299-4331 kihwa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56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3.7배나 증가하는 등 농업부문이 수출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의 엔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수출 신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2013년 1~4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에 그치고 있음. 엔저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미국, 홍콩, ASEAN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일본 수출은 전년보다 8.9%나 감소하였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저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비중은 24.9%(2012년)이나, 신선채소나 절화의 경우 수출시장이 대부분 일본이며, 일본의 신선채소와 절화 수입국 가운데 한국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여의치 않으면 수입선을 다른 국가로 대체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수입선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엔저 지속으로 인한 일본 수출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이 농산물 수입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음. 수출은 국내 출하 물량의 일정 부분을 해외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가격안정 효과가 있는데, 엔저 기조 속에서도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국내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절화류는 일본 수출 급감에 따른 수출물량 유입과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신선채소류와 절화류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엔저 상황 하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9일 발표한 엔저 대응 대책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둘째, 일본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일본의 소비 성수기까지 확대해야 함. 셋째, 일본 수출은 대부분 해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운회사와 정부 간 교섭으로 운임 할인을 추진해야 함. 넷째,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변동보험과 함께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혹은 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강화로 엔저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확대가 요구됨.

1. 엔화 환율 하락과 농식품 수출 동향

1.1. 최근의 수출 실적

□ 수출 신장세 작년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나, 아직까지는 2% 증가

- 농림축산식품 수출의 2013년 1~4월 누적액은 18억 달러로 2011년보다 14.8% 늘었으나, 2012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증가 폭은 둔화되었음
 - 최근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은 엔저로 인한 대일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지만, 중국, 미국이나 ASEAN 등으로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

표 1. 농림축산식품의 최근 수출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누계(1~4월)
2011년	384	356	356	475	1,572
2012년	364	451	487	466	1,769
2013년	452	394	469	490	1,804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5.3	26.7	36.9	△1.9	12.5
'12년 대비 '13년 증감률	24.3	△12.8	△3.9	5.0	2.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일본·EU 등의 수출은 저조한 반면, 미국·중국·ASEAN 등은 호조

- 국별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전체 농업부문 수출의 24.9%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2013년 1~4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9% 감소하였으며, 러시아 4.7%, EU 1.0%, 기타 국가는 11.2% 감소하였음
 - 반면, 2008년부터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8.1%, 미국도 14.5% 증가하였으며, 홍콩 27.9%, 대만 8.8%, ASEAN은 15.0% 신장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홍콩, 중국, 대만, ASEAN 등의 수출 증가로 현재까지 수출 증가세 유지 가능

표 2. 농림축산식품의 국가별 1~4월 누적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기타	계
2012년	448.5	280.6	148.6	76.1	88.5	62.8	256.1	110.3	297.2	1,768.7
2013년	408.6	303.4	170.2	72.5	113.2	68.4	294.5	109.3	263.8	1,803.9
증감률	△8.9	8.1	14.5	△4.7	27.9	8.8	15.0	△1.0	△11.2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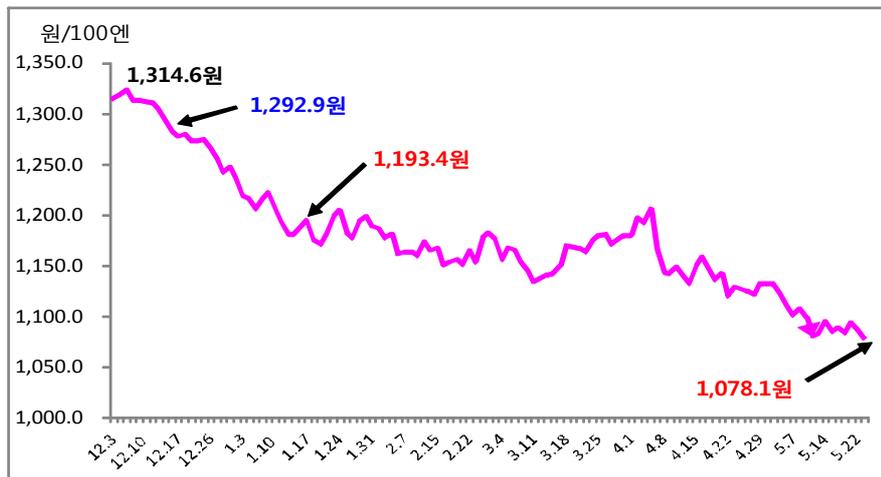
1.2. 엔저와 대일본 수출 동향

□ 100엔당 1,300원대였던 엔화 환율은 최근 1,100원선도 무너져

- 일본 수출비중은 2000년 45.5%에서 2012년 24.9%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시장으로서 엔화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엔화 평균 환율은 2010~2012년 100엔당 1,300~1,400원대였으나, 일본의 아베정권 출범 이후 엔저 정책 추진으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5월 23일 현재 1,078원으로 1,100원선도 위협

그림 1. 엔화 환율 변동 추이(매매기준을 기준)



자료: 외환은행

□ 대일 수출비중 높은 품목은 대부분 수출 급감

- 1~4월 대일 수출 누적액은 지속적인 엔저 현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평균 8.9% 감소하였지만, 일본시장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은¹⁾ 수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 화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장미, 국화, 백합은 거의 100%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1~4월 대일 수출은 각각 전년보다 36.5%, 37.3%, 10.9% 감소
 -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는 엔화 환율 하락이 본격적이었던 2월의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47.2%나 감소하였으며, 이후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조기 수출로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1~4월 누적액은 2.8% 감소

표 3. 엔화 환율 하락 이후 주요 농식품의 대일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계	1월	2월	3월	4월	계	1월	2월	3월	4월	계
김치	7.0	8.8	7.2	7.0	30.0	6.5	6.3	5.5	6.0	24.3	△7.1	△27.9	△24.3	△14.0	△18.9
파프리카	6.9	10.5	6.4	8.9	32.7	7.8	5.5	8.6	9.8	31.7	13.7	△47.2	33.9	10.6	△2.8
토마토	0.5	0.7	0.7	0.8	2.8	0.8	0.7	0.8	0.8	3.0	46.7	△9.4	2.7	△2.1	6.6
인삼	3.8	3.8	3.1	2.2	12.8	2.3	2.8	2.5	3.1	10.7	△37.4	△26.8	△19.6	41.5	△16.5
장미	2.3	1.0	3.8	3.1	10.3	1.2	0.4	2.2	2.6	6.5	△45.7	△58.4	△41.4	△16.8	△36.5
국화	0.5	0.4	0.9	0.5	2.2	0.3	0.2	0.6	0.3	1.4	△30.4	△41.2	△38.9	△38.4	△37.3
백합	1.7	0.7	0.7	0.1	3.3	1.2	0.7	0.8	0.3	2.9	△27.6	0.4	9.6	18.9	△10.9
유자차	1.8	1.2	0.6	0.4	3.9	1.4	0.8	0.3	0.4	2.8	△19.8	△36.0	△51.9	△5.0	△28.2
막걸리	4.4	3.2	3.0	5.9	16.6	1.6	1.7	1.3	1.2	5.9	△63.1	△47.3	△56.3	△79.4	△64.6
면류	3.7	4.2	6.0	5.4	19.2	3.9	3.4	3.8	4.3	15.5	7.0	△17.8	△36.5	△19.6	△19.4
과자류	10.6	10.6	11.1	11.7	44.1	11.6	8.8	11.1	10.5	42.0	10.0	△17.1	△0.1	△10.9	△4.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1) 2012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일본시장 수출비중은 파프리카가 100.0%, 장미 97.9%, 국화 99.7%, 백합 99.9%, 막걸리 86.7%로 일본 수출의존도가 크게 높으며, 김치 79.3%, 토마토 71.0%, 과자류 32.6%, 유자차 28.8%, 인삼 24.3%, 면류 17.1% 등

- 막걸리는 이른바 한류 열풍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일본 내 소비 열기가 주춤하면서 최근 수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²⁾, 여기에 엔저 현상이 겹치면서 1~4월 수출은 전년보다 64.6%나 급격히 감소
- 김치의 대일 수출은 1월 7.1% 감소에 그쳤으나, 2월과 3월에는 각각 27.9%, 24.3%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4월에도 14.0% 감소하여 평균 18.9% 감소
- 인삼 수출은 최근 들어 전반적인 감소 경향이며, 엔저 여파로 더욱 감소함에 따라 1~4월 누적액 기준 16.5% 감소
- 유자차는 수출 유망품목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일본시장 내 소비 부진과 엔저 영향으로 28.2%나 크게 감소
- 면류와 과자류는 일본보다는 미국,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가공품이지만, 엔저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대일본 수출은 최근 줄고 있는 추세
- 토마토는 최근 2~3년 사이 수출이 신장되고 있으며, 특히 신선토마토의 경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³⁾ 엔저로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1~4월 누적액은 전년보다 6.6% 증가하여 유일하게 증가한 품목

□ 수출 급감으로 수출 농가소득과 국내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

- 화훼류나 파프리카 등의 신선농산물은 물론, 인삼과 김치 등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수출 감소는 수출농가나 업체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시 국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이와 같은 수출 감소의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2) 막걸리 수출은 2000년 89만 달러, 2005년 127만 달러, 2011년 5,273만 달러로 급격한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감소로 전환되어 2012년에는 3,689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30.0%나 감소

3) 토마토는 2000년대 중반 이른바 웰빙 영향으로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품목이었으나, 2010년부터 다시 수출이 증가되어 2012년 수출액은 2000년대 초반 수준인 1,29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신선토마토 비중(2012년 기준)은 73.5%로 대부분 일본(96.7%)으로 수출

2. 엔저 이후 농식품의 대일 수출 영향과 전망

2.1. 주요 농산물에 대한 일본 수입선의 변화 영향

□ 현재까지 현저한 일본의 수입선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 최근의 엔저 현상 이후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⁴⁾, 1~3월 누적 수입비중은 한국산 58.8%, 뉴질랜드산 40.1% 등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한국산이 4.3%p 하락한 반면, 뉴질랜드산은 5.1%p 상승하였음
 - 그러나 엔저 지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생산량 증대로 인한 조기 수출로 대일 수출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일본의 급격한 수입선 변경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

표 4. 엔저 이후 일본의 파프리카·토마토 국별 수입 비중

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				
	1월	2월	3월	계	1월	2월	3월	계	
파프리카	한국	55.7	68.7	63.1	63.1	57.7	55.8	62.0	58.8
	오만	0.3	0.5	0.1	0.3	0.4	1.4	0.7	0.8
	네덜란드	0.2	-	3.8	1.5	0.1	-	0.5	0.2
	멕시코	-	-	-	-	-	-	0.2	0.1
	뉴질랜드	43.8	30.8	32.9	35.1	41.8	42.9	36.6	40.1
신선 토마토	한국	52.7	46.6	42.2	46.1	42.2	42.1	38.3	40.8
	미국	18.9	29.0	40.7	31.8	34.6	33.6	38.5	35.7
	멕시코	5.2	6.4	4.7	5.4	5.2	2.8	3.2	3.8
	뉴질랜드	23.2	18.1	12.4	16.8	15.9	18.5	15.7	16.6
	네덜란드	-	-	-	-	2.1	1.3	1.9	1.8
	캐나다	-	-	-	-	-	1.8	2.3	1.4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4) 일본시장에서 파프리카의 수입국별 비중(2012년 물량기준)은 한국산이 전체의 62.7%, 네덜란드산 23.7%, 뉴질랜드산 13.5% 등이며, 신선토마토는 미국산이 53.0%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산 35.8%, 뉴질랜드 5.2% 등

- 일본의 신선토마토 수입은 1~3월 누적비중이 한국산 40.1%, 미국산 35.7%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한국산은 5.3%P 하락한 반면, 미국산은 3.9%P 상승하였음.
 - 그동안 이 시기에 수입되지 않았던 네덜란드산과 캐나다산 토마토가 일부 수입되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재까지는 일본의 토마토 수입선 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일본 화훼류 수입의 경우⁵⁾ 장미는 최근의 엔저와 일본시장 내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1~4월 누계 검역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6.7% 감소하였으며, 고정 출하처가 있는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때문에 한국산 장미의 수입 비중은 2012년 1~4월 누계 12.5%에서 2013년 12.0%로 크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케냐와 인도의 비중이 높은 상태
- 일본은 국화 최대 수입국으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산 수입비중이 16~27%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 특히, 금년 1~4월의 일본 국화 검역실적이 전년보다 7.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화는 최근의 엔저 현상과 난방비 상승 등으로 수입비중은 0.7%P 하락
- 일본 백합수입은 한국산이 대부분이며, 엔저로 인한 채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로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네덜란드산 백합의 수입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전년 1~4월보다는 1.7%P 확대

5) 일본의 절화 수입국을 살펴보면(2012년 검역 기준), 장미는 케냐 31.5%, 인도 22.3%, 콜롬비아 10.1%, 한국 16.0%, 에콰도르 5.3%, 에티오피아 4.8% 등, 국화는 말레이시아 59.8%, 중국 19.0%, 베트남 11.9%, 한국 5.0% 등, 백합의 경우 한국 90.6%, 이스라엘 4.1%, 콜롬비아 1.3% 등으로 수입국이 다양

표 5. 엔저 이후 일본의 장미·국화·백합 국별 수입 비중

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					
	1월	2월	3월	4월	계	1월	2월	3월	4월	계	
장미	한국	12.2	4.7	11.6	27.2	12.5	8.4	3.1	11.1	30.2	12.0
	인도	27.4	37.4	35.2	13.1	30.9	26.3	35.5	33.0	19.7	29.8
	베트남	5.4	4.5	2.3	7.3	4.2	5.6	4.5	3.2	7.3	4.7
	콜롬비아	9.9	10.0	7.9	13.4	9.6	9.6	9.3	8.3	9.6	9.1
	에콰도르	6.8	5.7	4.6	2.8	5.0	5.3	4.6	3.7	4.0	4.3
	에티오피아	5.9	6.2	4.3	4.0	5.0	4.8	3.5	5.1	4.7	4.6
	케냐	28.4	27.0	30.7	28.4	29.1	35.7	34.5	30.0	21.3	30.8
국화	한국	4.2	3.2	3.3	5.2	3.8	3.2	2.9	2.6	4.5	3.1
	말레이시아	65.0	55.0	47.1	73.3	56.7	63.7	59.7	47.9	68.8	57.1
	중국	16.0	20.3	28.2	6.7	20.5	17.8	22.0	26.8	10.8	21.3
	베트남	12.9	11.3	10.7	13.2	11.7	13.4	10.2	11.1	13.9	11.8
	대만	1.0	8.8	8.9	-	5.9	0.5	3.9	10.3	-	5.2
	콜롬비아	0.5	0.6	0.7	0.8	0.7	0.8	0.6	0.7	0.4	0.6
백합	한국	93.3	81.4	56.2	53.2	74.8	79.9	85.2	67.1	65.2	75.0
	대만	4.0	2.8	2.8	2.8	3.2	9.4	0.1	3.7	1.7	5.1
	네덜란드	0.0	0.1	0.1	0.3	0.1	0.1	0.6	4.7	0.5	1.8
	콜롬비아	1.0	2.1	2.4	8.2	2.3	2.7	4.8	2.1	4.8	3.0
	이스라엘	0.3	2.2	23.5	19.3	10.2	3.9	2.2	16.8	10.4	8.7

주: 검역 분수 기준

자료: 일본식물방역소

□ 대일 수출 위축이 장기간 지속 시 일본의 수입선 대체 우려

- 엔저 현상에도 일본의 농산물 수입선 전환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신선채소나 화훼류는 일본의 한국산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충분함
 - 파프리카는 기후가 반대인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오만이나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 농후
 - 신선토마토는 한국산 수입이 여의치 않게 되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화훼는 현재와 같은 대일 수출 급감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미는 케냐 등의 아프리카, 국화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백합은 대만과 이스라엘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가 일본 화훼 수입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해 갈 전망

2.2. 국내 농산물의 가격 변동 영향

□ 파프리카·토마토 국내가격은 아직까지 수출 감소의 영향 없어

-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는 상황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현재 파프리카와 수출비중이 높은 방울토마토의 국내 가격은 전년에 비해 평균 12~18% 내외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생산량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

표 6. 엔저 이후 국내 파프리카·토마토 도매가격 변화

단위: 원/5kg

구 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2012년	1월	43,926	13,545
	2월	39,990	20,343
	3월	32,735	25,183
	4월	33,750	20,164
	평균	37,600	19,808
2013년	1월	33,752	17,397
	2월	34,038	14,997
	3월	32,316	20,970
	4월	22,744	16,072
	평균	30,713	17,359
등락률(%)	1월	△23.2	28.4
	2월	△14.9	△26.3
	3월	△ 1.3	△16.7
	4월	△32.6	△20.3
	평균	△18.3	△12.4

주: 도매가격은 중급 기준이며, 파프리카는 빨간 파프리카 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절화류의 경우 수출부진으로 국내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

- 절화류의 국내 도매가격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전반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판매 전환도 가격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수출실적이 크게 부진한 국화의 경우 주로 수출되는 스프레이 계통의 소국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14% 이상 하락하였으며, 백합도 17.7%나 급락

표 7. 엔저 이후 국내 절화류 도매가격 변화

단위: 원/본

구 분		장미	백합	국화대국	국화소국
2012년	1월	4,814	4,330	4,960	2,954
	2월	6,904	5,105	11,710	3,817
	3월	4,305	5,297	8,720	3,407
	4월	2,558	4,564	9,237	2,198
	평균	4,645	4,824	8,657	3,094
2013년	1월	5,226	4,448	7,695	2,620
	2월	7,189	3,952	10,205	2,983
	3월	4,078	3,641	7,380	2,486
	4월	2,660	3,837	6,272	2,542
	평균	4,788	3,970	7,888	2,658
등락률(%)	1월	8.6	2.7	55.1	△11.3
	2월	4.1	△22.6	△12.9	△21.8
	3월	△5.3	△31.3	△15.4	△27.0
	4월	4.0	△15.9	△32.1	15.7
	평균	3.1	△17.7	△ 8.9	△14.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수출부진 지속 시에는 비수기 가격부터 하락 우려

-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생산량 증가로 국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출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이 곤란해지게 되면,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어 국내 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 있음
- 화훼류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에다 수출마저 원활해지지 못하면, 일본 수출 비수기인 6~7월에 수출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이 시기에 국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일 6~7월 수출비중(2012년 검역기준)은 장미가 19.5%, 국화는 19.4%, 백합 12.5%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월간시황

- 특히, 6~7월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도 화훼 소비가 부진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출물량 유입에 따른 가격하락폭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

- 한편, 선행연구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중단되면, 수출물량의 국내 유입과 국내 수요 증대 곤란 등의 영향으로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표 8. 농식품 수출 중단 시 국내가격 영향

단위: %

구 분	가격지수	구 분	가격지수
과일·채소	-5.935	낙농제품	-1.083
축산·낙농	-2.872	식용유	-0.282
우유	-3.582	음료·담배	-0.506
육류·육가공품	-2.004	기타 식품	-2.801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저하 예상

- 엔저 지속 영향으로 대일 수출이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감소하여 내수로 수출물량이 전환되었을 경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⁷⁾ 파프리카와 방울 토마토 농가의 소득은 각각 3.5%, 2.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장미와 국화, 백합 재배농가의 소득은 각각 3.4%, 3.1%, 4.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표 9. 농식품 수출 중단 시 농가소득 영향

단위: 천 원/10a

구 분	2011년 소득	수출 감소 시 소득	증감률(%)
파프리카	14,627	14,115	△3.5
방울토마토	8,735	8,508	△2.6
시설장미	10,675	10,308	△3.4
시설국화	6,493	6,295	△3.1
시설백합	3,332	3,181	△4.6

주: 시설백합은 강원지역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7) 가격 하락은 선행연구(박기환 외, 2012)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대일 수출 감소폭은 현재 수준(8.9%)보다 더욱 확대된 20%로 설정한 후 과일·채소가격지수 하락폭에 적용하여 추정하되, 나머지 경영비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

3.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

□ 정부 발표(2013. 5. 9.)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모니터링

< 정부의 엔저 대응 대책 발표 개요 >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급격한 엔화 환율 하락으로 농식품 수출에 곤란을 겪음에 따라 2013년 5월 9일 다음과 같은 수출 지원방안을 발표
 - 환변동보험의 보장범위를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선택 옵션 다양화(외화당 최대 80원 범위보장·6개 옵션)
 - 파프리카, 장미, 백합, 국화, 김치, 막걸리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대일 수출 선적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표준물류비의 3%를 추가 지원
 - 수출운영자금 사업예산 300억 원을 추가 편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엔화 환율 하락으로 농식품 수출에 애로를 겪게 되자 환율 상승 시 환수금이 면제되는 환변동보험을 개설하여 지원(2013. 4. 15.~)한 바 있음
 - 그러나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환변동보험 제도개선,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발표
-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수요 개척은 물론, 국내 유입 물량의 해외시장 격리를 통한 국내 가격안정 효과도 입증되었으므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수출 정상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임
 - 따라서 발표된 대책의 조속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 대책이 실제 수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대일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원 품목 추가 및 기간 연장

- 현 일본 정부의 엔저 기조 정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일 수출 감소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성과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수출 부진으로 인해 일본의 농식품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 대체될 경우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수반
 -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기 조성된 수출시장 기반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
- 이러한 의미에서 대일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표준물류비의 3% 추가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토마토의 대일 수출 비중은 71.0%이며, 이 중 신선토마토는 96.7%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토마토 수출이 감소로 전환될 경우 물류비 추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
 - 인삼과 유자차의 대일 수출 비중은 각각 24.3%, 28.8%로 높지 않지만, 국산 원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서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출 감소 장기화 시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원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이거나, 일본의 8월 오봉⁸⁾과 9월 피안⁹⁾이 농산물 수출 적기이므로 지원기간 동안 수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 고려

□ 해운회사와의 교섭으로 대일 수출 운임 할인 추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항공 간의 MOU 체결(2012. 12)로 수출 농식품에 대한 운임할인 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대일 수출의 경우 항공수출이 아닌 해운으로 대부분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운회사와의 교섭으

8) 8월 13~16일 4일간을 「盆」이라고 하며, 원래 불교 행사의 하나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본의 전통 문화

9) 「彼岸(ひがん)」은 춘분(3월 20~21일경)과 추분(9월 23일경)의 전후 각 3일을 합친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묘비를 닦거나 가정용 불단을 청소한 후 꽃 등을 바치는 일본 전통 문화 중의 하나

로 운임을 할인 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운임할인 조치는 직접적 지원 형태가 아닌 간접 지원 방식으로써 수출물류비지원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DDA 협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 폐지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방안

□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험(혹은 기금) 개발

-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관계자의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대로 국내 가격이 강세인 가운데 엔화 환율이 하락한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
 - 이처럼 농식품 수출은 환율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안정적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효과가 크지 않고, 국내 가격과 연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수출단가보다 크게 상승하였을 경우 일정 정도 보상해주는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혹은 기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경우도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 정부의 물류비 추가지원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수출물량 확보는 어려우므로 환변동보험과 가격안정보험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표 10.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 의향

단위: %

구 분	찬성	반대	계
수출농가	89.7	10.3	100.0
수출업체	83.7	16.3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장기적 관점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엔저 불안 요소 해소

- 농식품의 대일 수출비중은 낮아졌지만, 신선채소류와 절화류 등의 일본 시장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압도적임
 -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등의 채소류와 절화류, 김치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일본의존도가 여전히 크게 높아 일본의 경제상황이나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
 - 따라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강화로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

- 엔저로 대부분 품목의 일본시장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국가 수출을 포함한 전체 수출실적은 일본시장 수출 비중 정도에 따라 증감률에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
 - 즉,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대일본 수출 증감률과 전체 수출 증감률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일본 수출비중이 낮은 품목은 대일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품목도 많은 것으로 분석

표 11. 품목별 1~4월 누적 수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품목	전체 수출(A)	대일본 수출(B)	A-B(%P)
일본 수출비중 80% 이상	파프리카	△ 2.8	△2.8	-
	장미	△36.8	△36.5	△0.3
	국화	△37.7	△37.3	△0.4
	백합	△11.1	△10.9	△0.2
	막걸리	△59.0	△64.6	5.4
일본 수출비중 50~80%	김치	△13.9	△18.9	△5.0
	토마토	2.2	6.6	△4.4
일본 수출비중 50% 이하	인삼	△11.0	△16.5	5.5
	유자차	△ 0.8	△28.2	27.4
	면류	6.8	△19.4	26.2
	과자류	9.6	△ 4.6	14.2

주: 일본 수출비중은 2012년도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이는 수출국 다변화가 이루어진 품목의 경우 엔화 환율 하락으로 일본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다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
- 또한, 수출 다변화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하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 때문에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증액시켜 수출국 다변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인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욱,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5. 26

발 행 2013. 5. 27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60-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